

2016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 멕시코 공식 방문



2016

박근혜 대통령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기

2016.3.30~4.6



Schedule 주요 일정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기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2016.3.31 - 4.1

3.30 WED 서울 출발

3.31 THU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환영 리셉션
정상 업무만찬

4.1 FRI 본회의
정상 업무오찬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및 폐회

동포 만찬간담회 4.2 SAT

국립인류학박물관 방문 4.3 SUN
문화공연

4.4 MON 애국영웅탑 헌화
공식환영식
단독회담 및 선물교환
확대회담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멕시코 대통령 주최 공식오찬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4.6 SAT
서울 도착



2016년 첫 해외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한데 이어,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올해 첫 해외순방을 마쳤다. 금번 순방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속되는 도발 위협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박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방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1박 2일 동안 개최된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핵테러 위협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 정상회의 공식일정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3국 정상들과의 의견을 심도 깊게 나누는 한편,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

이어진 멕시코 방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분야 MOU 29건을 포함 총 34건의 MOU를 체결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됐던 FTA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멕시코는 인구 1억2천만, GDP 1조 2천억불에 이르는 국가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큰 시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번 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에너지산업, 문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북미와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2016. 3. 31 - 4. 1

“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은 확고하며,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핵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업무만찬 中

핵안보 정상회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전진을 이어가다

‘핵 없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워싱턴 코뮈니케’를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금번 회의는 핵안보와 관련하여 정상 차원에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로, 회의에 참석한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는 그간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및 향후 핵안보 체제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1일(목) 환영 리셉션 및 정상 업무만찬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핵안보 모범국으로서, 관련 정부 조직과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왔으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셉션, 업무만찬, 본회의, 업무오찬,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순으로 이어진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모범국가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피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리셉션

업무만찬

본회의

업무오찬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업무만찬 핵안보 위협 인식

- 그간 세 차례 이루어진 정상차원의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평가
- 새로운 형태의 테러단체 등장 등 핵테러 위협 진화에 대해 언급
-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단합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업무오찬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

- 핵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필요성 강조
- 핵안보 관련 법과 규범 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
-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후, 핵안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필요성 제언



① ② 업무만찬 | ③ ④ 업무오찬

2016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2016.3.31~4.1



(왼쪽부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 전 세계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강화를 목표로 개최된 핵안보 관련 마지막 정상급 회의
- 핵안보정상회의의 종합적 성과 평가와 마무리, 핵안보정상회의의 프로세스 종료 이후 국제협력 제도화 방안 토의

참석대상

- 52개국과 4개 국제기구
- 핵물질 보유국, 원전운영국 및 도입 추진국, 기타 핵안보에 적극적인 국가 등 52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UN, IAEA, EU, 인터폴 대표 참석

핵안보정상회의 의제

- 핵테러 위협 평가
-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별 조치와 국제협력
- 핵테러 가상 시나리오에 대응한 정책결정

핵안보정상회의 돌아보기

제1차 워싱턴
(2010)

핵테러 위협에 대한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공감대 형성

제2차 서울
(2012)

정치적 선언 단계 →실천 단계로 전진,
100개 이상의 국가공약 확보

제3차 헤이그
(2014)

성과 중간 평가 및 실질 이행조치
강조, 공동성과물 확대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일정 참석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적인 양자회담 및 3자 협의를 가졌다.

하루에 걸쳐 동 일정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적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그간 우리와 주요국들과의 양자 관계의 견실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다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Barak Obama)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금번 순방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양국 정상은 안보리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6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다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버락 오바마(Barak Obama) 미국 대통령의 주최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일 3국은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지금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하다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방한 이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일 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이행조치가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회담 말미에 양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평가하고, 금번 합의를 온전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신뢰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일곱 번째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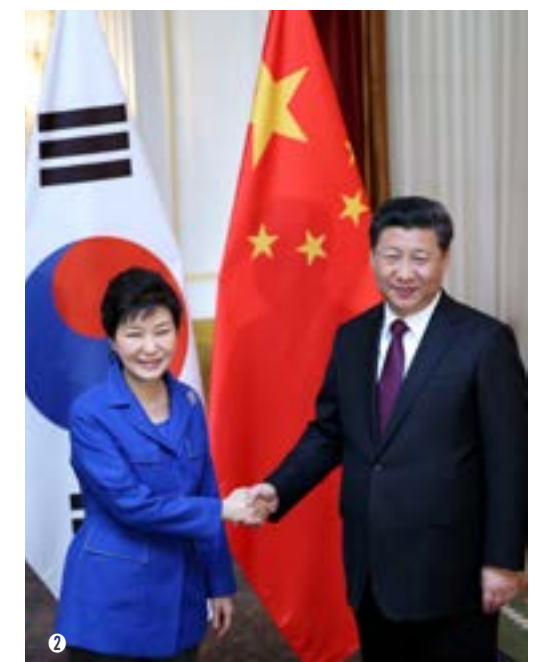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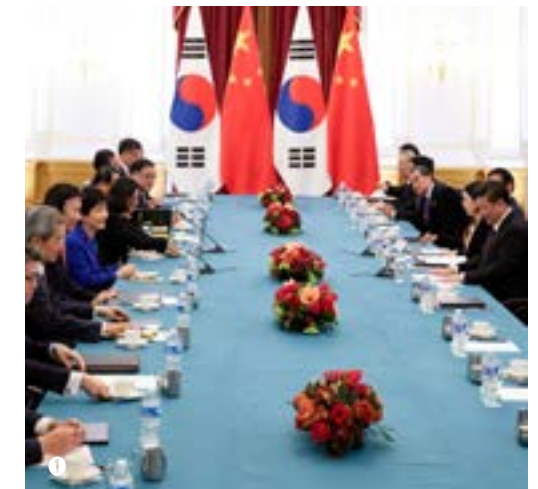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20일에 발효한 한·중 FTA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하자.”고 화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핵문제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향후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금번 정상회담은 2013년 양국 정상 취임 이래 7번째 회담이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개최된 첫 회담으로서, 양 정상간 신뢰를 제고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① ② 한·중 정상회담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업무만찬 발언문 핵안보 위협인식

오바마 대통령님, 그리고 각국 지도자 여러분, 먼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그동안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주신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22일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벨기에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2010년 이곳 워싱턴에서 시작하여 서울과 헤이그를 거쳐 오늘 다시 이곳에 모인 우리는 공동의 의지와 구체적 노력을 통해 핵안보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취약 핵물질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시설의 방호체제와 핵밀수 차단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각국의 핵안보 문화도 증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핵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정에 대한 논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하게 된 것 역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테러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핵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대와 전진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적, 지역적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테러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핵시설과 핵물질을 수중에 넣어 전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고,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통해 핵테러 위협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사용한 원자력 시설 침투나 방사성 물질의 살포, 또는 원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

격과 같이 신기술을 악용한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핵테러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 또한 보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연대도 더욱 견고하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국 지도자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년 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고, 오직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 비확산, 핵안보,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국제규범을 무시하면서 20년 넘게 무기급 핵물질 생산과 축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09년 IAEA의 핵시설 접근을 차단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축적,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과거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무인기 침투 시도를 감안하면, 이 같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해서 원자력 시설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은 확고하며,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핵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업무만찬 발언문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

각국 지도자 여러분, 지난 6년간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노력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를 통해서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하여 각국 정상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상 차원으로는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핵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유엔, IAEA,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트너십(GP)과 같은 협의체(이니셔티브)의 핵안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투입 자원을 늘리는 동시에 업무 중복을 줄여서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서 핵안보 규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IAEA는 규범 마련과 이행 점검, 각국의 역량 강화 지원 등 핵안보 전반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도 각각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핵안보 강화에 계속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핵안보 관련 법과 규범 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가 임박하였

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큰 진전을 거두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IAEA의 핵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상회의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관료, 원자력 산업계와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계속 유지해서, 핵안보 의식증진과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국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년간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 힘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그 동안 다져온 국제 핵안보 체제를 다음 세대의 항구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워싱턴 코뮤니케 / 한글

2016 핵안보정상회의의 코뮤니케

핵 및 방사능테러는 여전히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이며, 그 위협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은 2016년 4월 1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회합하였으며, 2010년 이래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러한 위협 인식을 제고하고 핵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으며 영속적인 많은 진전들을 가져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관련 국제 협약의 비준과 이행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지역, 전세계 차원의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협약의 보편화와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발효가 임박한 것을 환영하며, 추가 비준을 장려한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로서 핵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핵안보 강화 조치가 각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국의 의무에 따라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한 자국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핵물질 및 여타 방사성 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항시 유지해야 할 국가의 근본적 책임을 재확인한다.

비국가행위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 및 여타 방사성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추가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핵테러 위협을 경감하고 핵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다.

지속적인 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경계를 지속해야 하며, 우리는 핵안보를 계속하여 우선순위에 둘 것을 서약한다. 오늘 취한 조치는 내일의 핵안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각국의 여건에 대한 고려 하에 민감 정보를 보호하면서 동 조치들을 가시적으로 취한다면, 국내 핵안보 체제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 및 방사능 테러 대응은 각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정보 공유를 포함한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국제 협력은 공동의 이익 및 모두의 안보를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조율되고, 지속가능하며 강력한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국제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심적 책임과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며,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핵안보 활동을 촉진 및 조율하고, 핵안보 책임 이행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IAEA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AEA가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핵안보 인식을 계속 제고하기 위해, 각료급 세션을 포함한 2016년 12월 핵안보 국제회의와 같은 고위급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정상회의를 지원해 온 관료 및 정부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을 포함시켜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원자력 산업계 및 시민사회 내 유관 파트너들의 지속적 참여를 장려한다.

정치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국가, 지역 및 전세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결심 하에서, 우리는 침부된 행동계획들을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동 행동계획들은 우리가 각각 속해있는 국제기구 및 협의체(UN, IAEA,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파괴무기 및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동 행동계획들은 참여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

2016년 정상회의로 지금과 같은 형식의 핵안보 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우리는 2010년, 2012년, 2014년 정상회의 코뮤니케와 2010년 정상회의의 작업계획이 앞으로도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NUCLEAR SECURITY SUMMIT 2016 COMMUNIQUE

The threat of nuclear and radiological terrorism remain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threat is constantly evolving. We, the leaders, gathered in Washington, D.C. on the first day of April, 2016 on the occasion of the fourth Nuclear Security Summit, are proud to observe that the Summits have since 2010 raised awareness of this threat and driven many tangible, meaningful and lasting improvements in nuclear security. The Summits have also strengthened the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cluding through broadened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regarding nuclear security.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its 2005 Amendmen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will continue to work toward their universalization and full implementation. We welcome the imminent entry into force of the 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and encourage further ratification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shared goals of nuclear disarma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e also reaffirm that measures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will not hamper the rights of States to develop and use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e reaffirm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to maintain at all times effective security of all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including nuclear materials used in nuclear weapons, and nuclear facilities under their control.

More work remains to be done to prevent non-state actors from obtain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which could be used for malicious purposes. We commit to fostering a peaceful and st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by reducing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nd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Sustaining security improvements requires constant vigilance at all levels, and we pledge that our countries will continue to make nuclear security an enduring priority. We, as leaders, are conscious of our responsibility. Actions taken today can prevent tomorrow's nuclear security incidents. Where we choose to take such steps visibly, in light of national conditions and while protecting sensitive information, we contribute to strengthening and building confidence in the effectiveness of our national nuclear security regimes.

Countering nuclear and radiological terrorism dema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sharing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States'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contribute to a more inclusive, coordinated, sustainable, and robust global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for the common benefit and security of all.

We reaffirm the essential responsibility and the central rol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strengthening the global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and in developing international guidance, and its leading role in facilitating and coordinating nuclear security activities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and supporting the efforts of States to fulfill their nuclear security responsibilities. We welcome and support the Agency in convening regular high-level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the December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including its Ministerial segment, to maintain political momentum and continue to raise awareness of nuclear security among all stakeholders.

We seek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officials and government experts who have supported the Summit process and to incorporate the broader community of States, as well as encourage the continued engagement of relevant partners in nuclear industry and civil society.

In our continued collective determination to ensure political momentum a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we resolve to implement the attached Action Plans, in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to which we respectively belong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TERPOL,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to be carried out on a voluntary basis and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and respecti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se plans reflect the political will of participating States.

The 2016 Summit marks the end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ocess in this format. We affirm that the Communiqués from the 2010, 2012 and 2014 Summits and the Work Plan of the 2010 Summit will continue to guide our efforts as we endeavor to fully implement them.



멕시코 공식방문

2016. 4. 2 - 4. 4

“ 저는 이번 멕시코 방문을 통해 우리 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우정과 신뢰를 더욱 굳게 다지고, 실질 협력 증진과 동반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값진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한국과 멕시코가 진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中

한·멕시코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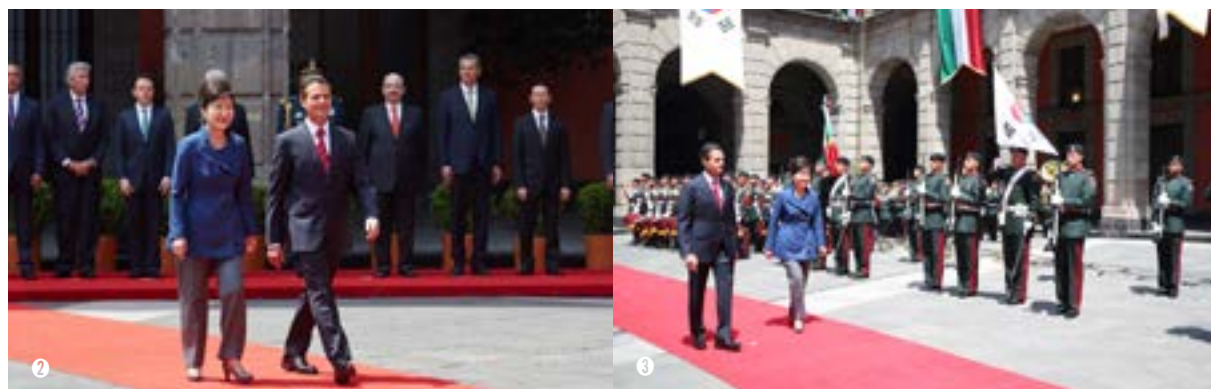


공식환영식 단독회담 확대회담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공식오찬



한·멕시코 정상회담 공식환영식

① ② ③ 공식환영식



한·멕시코 정상회담 단독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 마지막 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문제 등 지역 정세, 교역·투자 및 에너지·교통·인프라 등 실질협력 증진, 중견국 외교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상 방문으로, 멕시코는 2005년 9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전통적 우방국이며, 북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 외에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협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멕시코 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남미 비핵지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멕시코 정상회담 확대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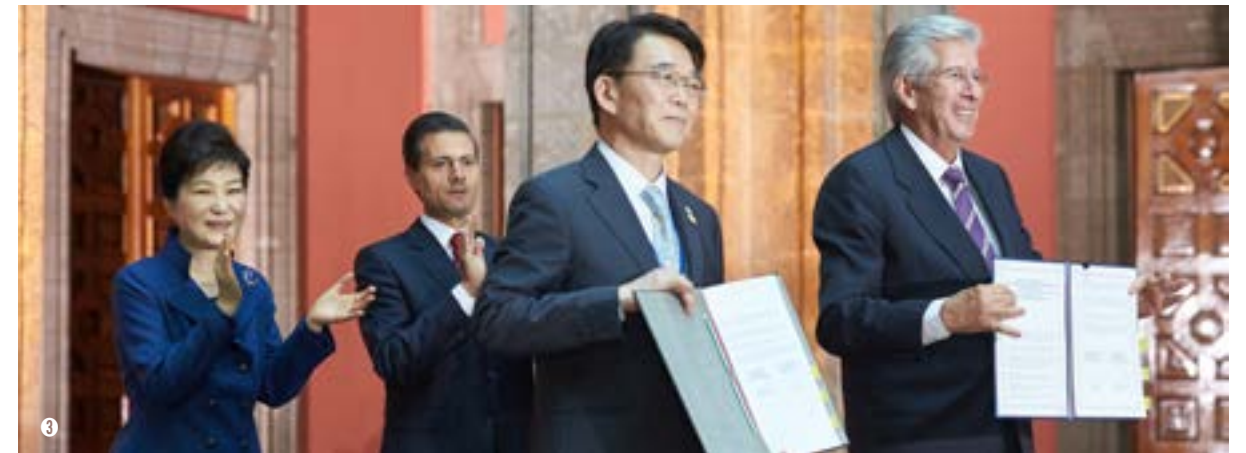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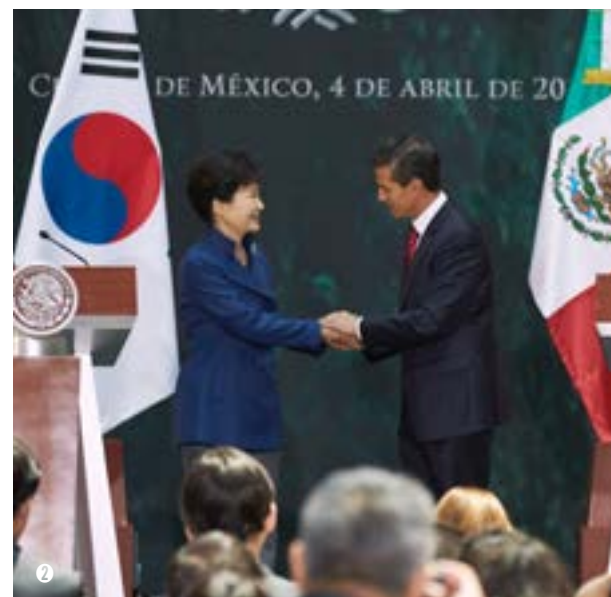
④ 단독회담
⑤ ⑥ 확대회담

한·멕시코 정상회담

한·멕시코 정상회담 MOU &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금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총 34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FTA 등 자유무역 확대 방안 논의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우리 경제 외교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MOU &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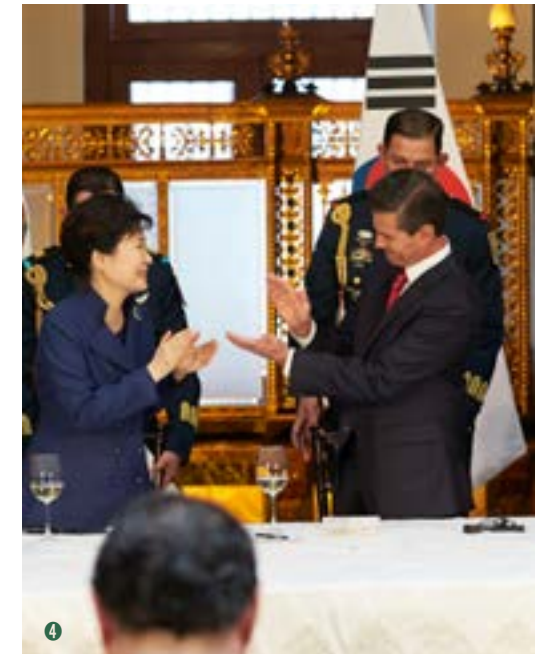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

양국간 사상최대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북미·중남미 시장진출 확대

- 한·멕시코 FTA 관련 실무협의 금년 중 개최 합의
- 에너지(170억불), 교통, 수자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추진
- 보건의료, 에너지산업, 문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지평 확대
- 현지 진출업체 기술지원체제 구축 및 기업애로 해소

한·멕시코 정상회담 공식오찬

① ② ③ ④ ⑤ 공식오찬



“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은 첫 번째 멕시코 공식방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1962년 양국이 국교를 수교한 이후에 이뤄진 양국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보다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 분야, 투자 협력, 특히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 저는 이번 멕시코 방문을 통해 우리 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우정과 신뢰를 더욱 굳게 다지고, 실질 협력 증진과 동반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값진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한국과 멕시코가 진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

- 박근혜 대통령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박근혜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대표 기업인 400여 명을 만나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양국 기업인들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 교역과 투자의 확대
- 전력, 교통, 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 문화, 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협력 활성화

“ ‘좋은 나무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드리운다’ 는 멕시코 속담처럼 한국과 멕시코가 서로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

- 박근혜 대통령



① ② ③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박 대통령은 양국이 FTA 협상재개를 위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고,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양국의 대응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우리 함께 길을 만들어가자.’는 뜻의 스페인어 “훈토스 바모스 아씨엔도 까미노(Juntos vamos haciendo camino)”를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 날 오전에는 L.A.에 이어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려 우리 기업 95개사와 중남미 바이어 181개사가 참석했다. 또, 처음으로 K뷰티 쇼케이스 등 다양한 주제의 상담회장도 구성돼 국내기업의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1: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이사는 “통상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1~2년이 걸리는데 경제사절단으로 오면 기간이 단축된다.”며, “현장에서 직접 바이어 얼굴을 보면서 상담할 수 있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멕시코에서 개최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33건, 0.86억불의 실질성 결과가 창출됐으며, 앞서 미국 L.A.에서 개최된 행사의 성과를 포함해 양국 합계 50건, 2.54억불(2,930억원)의 실질성 결과를 창출했다.

애국영웅탑 헌화



① ② 애국영웅탑 헌화

<애국영웅탑>은 1847년 멕시코-미국 전쟁 당시 멕시코시티까지 진격한 미군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하다 순국한 소년사관생도 6명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으며, 외국 정상인 멕시코 방문시 공식 환영식 직전행사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멕시코 정상회담 계기 MOU 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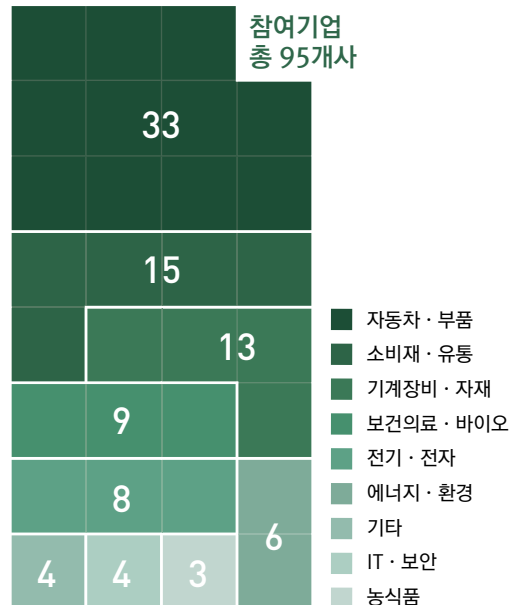
명칭	체결 주체	주요내용 및 기대 효과
I. 교역·투자 확대(11건)		
무역·투자 진흥 및 산업자원협력 위원회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멕) 경제부·에너지부	기존 광물자원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산업,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협력기반 구축
멕시코 온라인시장 진출 협력 MOU	한) KOTRA 멕) Linio Mexico社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해 멕시코 유력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기업 진출
수출입 협력 MOU	한) 수입협회 멕) ProMexico(무역투자진흥청)	양국간 기업·정보 교류를 통해 공급선 개발 애로 해소 및 무역활성화 기반 구축
	한) 수입협회 멕) COMCE(무역투자기술위)	
	한) 대한상의 멕) COMCE(무역투자기술위)	
무역보험 협력 MOU	한) 무역보험공사 멕) Bancomext(수출입은행)	우리기업의 멕시코 진출 및 양국 공동 제3국 프로젝트에 수출신용 협력
전대금융 한도계약	한) 수출입은행 멕) Bancomext(수출입은행)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산 수입 멕시코기업에 2억불 규모 전대금융 제공
금융감독 협력 MOU	한) 금융위·금감원 멕) 은행증권위원회	국내 금융회사의 멕시코 진출을 지원, 현지기업 및 교민들의 애로 해소
중소기업 금형기술지원센터 구축 협력 MOU	한) 산업기술진흥원 멕) CONACYT(과학기술위)	센터 구축으로 수출 후 A/S가 필요한 금형산업 애로 해소 (A/S비용 사전공제 관행 개선, 인력파견·장비대여 비용 절감 등)
표준·인증 협력 MOU	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멕) NYCE(전자부문 표준화인증센터)	양국 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한 인증 비용 및 시간 감소로 수출 증대
KSP 협력 MOU	한) 기획재정부 멕) 외교부	멕시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제고
II. 인프라 협력(5건)		
교통·인프라 협력 MOU	한) 국토교통부 멕) 교통통신부	멕시코가 추진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6천억불)에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수자원 협력 MOU	한) 국토교통부 멕) 환경자원부	물부족 문제가 심각한 멕시코에 스마트물관리 사업 등 수자원 협력 강화
몬테레이 지역 가스복합사업 개발 협력 MOU	한) 한전·삼성물산·삼성ENG 멕) Techint E&C社	다국적기업과 공동 컨소시엄 통해 신규 가스복합발전 사업개발 및 건설 협력
해외 프로젝트 금융 MOU	한) 무역보험공사 멕) 산탄데르은행	우리기업 참여 멕시코 프로젝트에 무보 보증 및 산탄데르은행 신용 제공(5억불 한도)
수출입은행-연방전력공사 간 업무협약	한) 수출입은행 멕) CFE(연방전력공사)	우리기업 참여 멕시코 CFE 발주사업에 수은의 금융 제공 (‘18년까지 10억불)

명칭	체결 주체	주요내용 및 기대 효과
III. 신산업 분야 협력다각화(13건)		
ICT 기반 건강기술 협력약정	한) 보건복지부 멕) 보건부	원격의료 등 e-Health 분야 기술·인력 교류를 통해 우리기업의 멕시코 진출 확대
원격의료 협력약정	한) 서울성모병원 멕) Centro Medico Nacional	양국 보건부간 협력약정 체결의 실행을 민간의료기관간 구체협력사업 진행
	한) 분당서울대병원 멕) Hospital General	
	한) 분당서울대병원 멕) 깨레따로췌 보건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분야 협력 MOU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멕) COPEPRIS(연방보건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협력을 통해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
건강보험 협력 MOU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멕) 사회보장청	건강보험 관련 교류 확대로 보건의료 협력 기반 조성
제약협회 간 MOU	한) 제약협회·보건산업진흥원 멕) 제약협회	멕시코 제약 분야 시장 및 규제정보 공유, 협력업체 발굴로 시장 진출 확대
의료기기 인증협력 MOU	한)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멕) UNIVERIX	멕시코 의료기기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멕시코 수출 증대
에너지 기술 및 정책 협력 MOU	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멕) IIE(전력연구원)	양국 에너지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 강화
에너지 R&D 협력 MOU	한) 에너지기술평가원 멕) CONACYT(과학기술위)	에너지 분야 시장진출형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에너지기술의 멕시코 진출 확대
전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MOU	한) 한국전력공사 멕) CFE(연방전력공사)	멕시코 CFE 추진 전력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수주 및 기자재 수출 증대
문화창조 산업협력 MOU	한) 문화체육관광부 멕) 문화부	양국 문화 교류 확대로 네트워크 구축 및 중남미 콘텐츠 시장 진출 거점 마련
특허 협력 MOU	한) 특허청 멕) 특허청	우리 특허청이 멕시코 특허협력조약 국제수사서비스 기관으로 지정, 멕시코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IV. 교육·관광·문화재·치안(5건)		
고등교육 MOU	한) 교육부 멕) 공교육부	양국 교육기관, 학생 교류로 교육협력 기반 확대
2016-2017 관광분야 구체협력 프로그램	한) 문화체육관광부 멕) 문화부	관광협력 MOU 후속조치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협력 방안 마련
문화재 보호관리 협력 MOU	한) 문화재청 멕) 문화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술 교류 및 시스템 개선
조직범죄, 마약수사 등에 관한 MOU	한) 대검찰청 멕) 법무성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밀매 등 국제수사공조 협력체계 구축
치안협력 MOU	한) 경찰청 멕) 내무부 연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치안협력 강화

1:1 비즈니스 상담회 성과

멕시코 방문 계기 미국, 멕시코 <1:1 비즈니스 상담회> 성과

01 멕시코 방문계기 1:1 비즈니스 상담회 성과



멕시코에서는 우리 기업은 단일 상담회로는 최대 규모인 95개사, 바이어는 181개사가 참여하여 유통 · 소비재, 자동차 부품 및 기계 등 분야에서 총 466건 상담 실시

우리 기업 95개사 중 중소기업은 91개사, 전체 중 96%를 차지(나머지는 대기업 3개, 병원 1개)하였고, 업종별로는 자동차 · 부품이 33개사 35%로 최대이며, 소비재, 기계장비, IT, 보건의료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

미국 LA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양국 합계 우리 기업 119개사, 바이어 289개사가 참가하여 790건 상담을 통해 총 50건 2.54억불 (2,930억원)의 실질 성과를 창출함

	참여기업 (개사)		성과	
	우리기업	바이어	건수 (건)	금액 (억불)
미국 (LA)	58	108	17	1.68
멕시코	95	181	33	0.86
계	119 (34개 중복)	289	50	2.54

02 1:1 상담회로 창조경제 성과 세계로 확산



마린테크노 혁신센터 지원과 크라우드펀딩 으로 수출기업 도약



마린테크노는 수산부산물(생선지느러미 등)에서 추출하여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린콜라겐을 생산하는 친환경 해양바이오 기업으로 美 L.A.와 멕시코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5건 56만불 MOU 체결로 수출기업으로 도약

그동안 샘플 수출 외에는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Woo One(美), Ale Imposer(페루), Klimp America(과테말라) 등의 바이어와 5건 56만불의 MOU를 체결하고 일약 수출기업 도약

미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으로 투자유치, 해외진출 성공



미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으로 인천센터가 주관한 2015 한중 스타트업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투자유치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경진대회 전국 2등 수상 경력 보유.

뉴욕 상담회('15.10)에 참석하여 미국 2위의 홈쇼핑 HSN과 상담을 진행하고, '16.1월까지 시범적으로 8회의 방송을 통해 25만불의 판매실적을 기록함. 일본 QVC Japan 홈쇼핑을 통해 5천만원 매출



동포 만찬간담회

“한국과 멕시코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동포 여러분께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신다면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① ② ③ ④
동포 만찬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의 첫 일정으로 200여명의 동포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동포사회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멕시코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가 양국의 지속적인 관계발전과 교류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멕시코에는 건설사·지상사 주재원, 섬유업·의류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12,000여명의 동포들과 구한말 이주 한인 후손 3~5세대 30,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로 양국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금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와 인프라, ICT, 보건의료, 문화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동포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맞춤형 영사 서비스 정책과 차세대 정체성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욱 멕시코 한인회장은 “한인사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민들과 현지인 간의 사회통합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노인협회 지부 설립 추진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대한체육회 지부 설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인류학박물관 방문



① ② ③ ④ ⑤ 국립인류학박물관 방문

멕시코 공식 방문 둘째 날 첫 일정으로 <국립인류학박물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안토니오 사보릿(Antonio Saborit) 박물관장과 호세 루이스 마르띠네스(José Luis Martínez) 문화부 국제협력대사의 안내로 아즈텍, 마야 등 멕시코 고대문명 유물들을 둘러봤다. <국립인류학박물관>은 멕시코 국민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박물관으로, 멕시코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중남미 최대의 인류학 박물관이다.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이 인류 문명의 보고로 세계인의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마야관에 전시되어 있는 당시의 문서들을 보며 보존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안토니오 사보릿 박물관장은 “스페인 정복기에 모두 태웠다. 전 세계에 몇 개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피라미드 유물과 멕시코를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인 ‘태양의 돌’ 등을 차례로 관람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한-멕시코 양국 문화 교류 촉진에 기여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양자관계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멕시코 문화교류 공연 관람



1

“ 오늘 여러분이 공연에서 보셨듯이 양국이 협력해 아주 멋진 하모니를 이뤄내는 것을 보며 ‘우리 두 나라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세계무대에 선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를 통해 두 나라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 박근혜 대통령



2



3



4



5



6

1 2 3 4 5 6
한·멕시코 문화교류 공연 관람

〈국립인류학박물관〉 방문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극장〉을 찾아 태권도, K팝, 실람 등 양국 문화교류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중남미 지역 한류 확산을 지원했다. 멕시코는 지난 2011년 세계유일의 태권도 프로리그 〈TK-5〉를 창설하는 등 태권도가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한류 팬이 14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이다.

박 대통령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양국의 문화공연을 관람한 뒤 무대에 올라 한국문화를 공유하고, 사랑해주는 멕시코 국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번 공연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공연에 참석한 멕시코 국민들은 “태권도가 정말 아름다운 예술이고, 무술이라 더욱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K팝을 너무 좋아해서 전통음악,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고 말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2016

박근혜 대통령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기

2016.3.30~4.6.

발행일
2016. 5

2016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 멕시코 공식 방문

